

르호봇: 양보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

본문: 창세기 26:12-22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ghODKmf1AE?si=OXOvIKscE72gYHQ4>(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참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가뭄을 피해 머문 땅에서 극심한 텃세와 시기를 당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역사로 백 배의 수확을 거두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 때 팠던 모든 우물을 훑으로 메워버립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지 않고, 애석과 시나의 진흙탕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능력이 없거나 바보같이 살아서 당하는 것이라며 율법적으로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우물을 양보합니다. 당시 이삭은 무력으로 맞서 싸울 힘이 충분히 있었지만 혈기를 부리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억울한 양보와 침묵은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들을 멸하실 힘이 있으셨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은 다툼(에섹)과 적대감(시나)으로 주님을 못 박았지만, 주님은 친히 생명을 내어주시므로 온 인류를 살리는 영원한 구원의 우물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취해야 할 진짜 승리는 세상 힘으로 내 밥그릇을 억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다툼과 혈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도로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양보는 결국 **'넓은 공간'을 뜻하는 르호봇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양보할 때, 하나님은 다툼이 없는 평안한 곳으로 이끄시며 사방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세상의 훑으로 억울하게 메워진 우물 앞에서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걷는 십자가의 길 끝에 예비된 르호봇의 축복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관찰]

1. 이삭이 농사하여 백 배를 얻고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여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창 26:15)
2. 이삭이 다투지 않고 우물을 양보한 후 다른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없자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창 26:22)

[삶의 적용]

1.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 내 힘으로 아등비등 다투며 쟁취하려고 했던 '에섹'과 '시나'의 경험은 없습니까?
2.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내가 조용히 양보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영역은 어디이며, 그때 주어질 '르호봇'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억울한 현실 앞에서도 혈기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마침내 내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르호봇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